News p/03

설 연휴 길 막히면 ☎ 110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제2904호 www.metroseoul.co.kr

News p/04

고향 다녀오면 선물이 펑펑

대입정원 16만명 단계별 감축

NEWS p/02

쌀밥 하루 2공기도 안 먹는다

NEWS p/04

설 연휴 볼만한 TV프로·영화 가이드 ▶22·26면

"ADVANCE SAVER – 어드밴스 세이버"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조기 예약 상품으로 15일 먼저 예약하고 15% 할인받으세요.

앰배서더

최저가격
From ₩76,500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강남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명동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전 세계 1000개의 이비스호텔이 드리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지금바로 예약하세요! • ACCORHOTELS.COM • ambatel.com • 콜센터 00798 8521 2018

LE CLUB ACCOR HOTELS | 로열티 프로그램 "르클럽 아코르 호텔스" 무료 가입하고 포인트 적립 및 무료 숙박 기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JOIN OUR GLOBAL LOYALTY PROGRAM AT ACCORHOTELS.COM

SOFITEL LUXURY HOTELS · pullman · MGALLERY · GRAND MERCURE · THE SEBEL · NOVOTEL · Suite NOVOTEL · Mercure · adagio · ibis · ibis Styles · ibis budget · HOTEL FORMULE1

Entertainment p/24

CF 15개 찍었지만 '뚜벅이'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제290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9

이용대 인천AG 못나가나

외국인도 '때때옷' 차려입고… 28일 오후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설날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제기를 차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근로자·유학생 등 150여명이 참가해 세배하기·제기차기·투호던지기·만두빚기 등 다양한 설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뉴시스

온 국민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막히고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살떨리지만 그래도 갑니다, 고향으로…

꽉 막힌 '3G'설날 마음은 'LTE'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서구화된 문화의 영향 등으로 예전만큼 분위기가 고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의 첫날을 맞아 새로운 몸가짐으로 가내 만족을 기원하며 조상께 정성껏 차례를 올린다. 차례나 설빔·세주 등의 의식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만나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는 훈훈한 풍습은 남아있다.

올해 설날은 예년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조류 인플루엔자(AI)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이 크게 늘어난 반면, 고속도로 주요 구간 소요 시간은 최대 3시간 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 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귀성객들의 통행 특성 변화를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설 당일에 귀성·귀경하는 비율이 귀성은 16.4%에서 24.9%로 8.5%포인트, 귀경은 24.2%에서 39.5%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1박2일 체류(22.2→34.0, 11.8%포인트), 수도권 내 이동(20.6→28.5, 7.9%포인트), 승용차 이용(75.9→83.3, 7.4%포인트) 및 고속도로 이용(71.3→81.1, 9.8%포인트) 비율도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구간 최대 소요 시간(예측)은 10년 전보다 최대 3시간 이상 단축돼 명절기간 통행 수요의 특정 기간 집중에도 불구하고 도로 정체는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귀성·귀경길 출발의 경우 설날 2일 전 귀성은 4.0%포인트(18.7→14.7), 설날 2일 이후 귀경은 12.6%포인트(30.9→18.3) 각각 감소했다. 반면에 설날 당일 귀성은 각각 8.5%포인트(16.4→24.9), 설날 당일 귀경은 15.3%포인트(24.2→39.5)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설날 당일을 포함해 전후 3일 동안 80%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설 연휴 첫날과 귀경길이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해 차량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한 업체들도 많다. 대표적인 곳이 극장업계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외식업계 등이다. 고궁과 스키장, 각종 놀이시설 등도 저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해 설 대목 잡기에 나선다.

백화점 등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 기간인 31일부터 2월 6일 동안 8만 명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잡기 위한 총력에 돌입하고 통역 사원 확보, 별도 서비스 등을 준비한 지 오래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사인 면세점과 백화점 등 특화된 쇼핑의 업무 제휴를 통해 세일 정보에서 온라인 할인쿠폰에 이르기까지 실용적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5925명 '설날 특사'

289만명 면허제재 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설날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 수형자 1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사범 871명에 대해선 가석방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 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정상적 생계 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즐거운 설 보내세요 오늘 32면 발행

삼성 '공채 논란'이 남긴 것

기자 수첩
장 윤 희
<경제산업부 기자>

삼성그룹이 사회적 반대 여론에 가로막혀 결국 손을 들었다.

삼성그룹은 올 상반기 새롭게 도입하려던 공채 전형을 전면 유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실상 신규 공채 계획의 무효화다.

논란의 화근은 '대학총장 추천제'였다. 대학별로 할당된 인원에게 서류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 계획은 대학 서열화 조장, 지역 차별 등의 논란을 불렀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몇몇 대학 교수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학이 취업 기관으로 전락됐다는 현실을 입증한 사태' '기업이 대학 위에 올라앉으려 한다' 등의 강도 높은 비난 의견을 냈다.

기업이 공채제도를 바꾸는 것은 자유다. 입시제도처럼 정부 합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삼성 이외에 논란이 될 만한 공채 전형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수두룩한 것도 현실이다. 장기 근속 자녀에게 서류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가산점을 주는 모 자동차 회사가 대표적이다.

삼성은 씁쓸한 기분일 것이다. 당초 신규 공채전형의 핵심은 서류전형 부활이었지, 총장 추천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화선이 된 대학별 총장 추천 인원 정보는 의도치 않게 외부로 유출됐다. 국위 선양과 일자리 창출에 어느 기업보다 앞선 삼성으로서 전국적인 비난은 아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책임이 이만큼 막중함을 증명한 사례로 기억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이 더욱 성숙한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혼쭐나는 '독도는 일본땅' 28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기로 한 공식 결정과 관련,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이 벳쇼 고로(왼쪽) 주한 일본 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대입정원 16만명 줄인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2017년까지 1단계 4만명 우선 감축키로

대학 입학 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 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이 줄어들게 된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대학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에서 탈피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 명을 줄이는 입학 정원 감축이다.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의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 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 명을 ▲3주기(2020~2022년) 평가 결과 7만 명을 2021~2023년에 줄인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16만 명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 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시범가동 28일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가면서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운영자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개성공단 출입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총선 득표 2% 미만 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녹색당·진보신당 당명 되찾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 또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정당 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 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현정기자 jhj@

평택 농가는 AI 아닌 듯

수도권 확산우려 한숨 돌려 "바이러스 야생 조류서 유입"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 등 야생조류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는 28일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이었고 H5N8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검사한 가금류와 야생철새 시료 205만점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발생농가인 전북 고창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고, 발생지역이 겨울철새 월동지인 서해안 지역에 편중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림저수지의 철새 폐사체에서 H5N8형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동림저수지, 군산, 서천, 시화호 등의 철새 시료에서도 H5N8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점도 근거라고 말했다.

거리로 나선 '닭'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AI 관련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의 한 병아리 육계농장과 전남 영암 씨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즉각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다행히 평택 육계농장은 음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25곳이며 오염 여부를 검사 중인 곳은 12곳이다. /김민준기자

북, 해상사격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해상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만약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통문을 보내 위협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도 이에 대응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며 "전통문에는 해상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훈련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홈피서 털린 개인정보 4만건

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5만 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634건이 노출됐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설치율은 40%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중에는 통계청이 44개 사이트 중 1개만 설치해 설치율이 2.2%로 가장 낮았다. /조현정기자

무엇이든 들어주는 '착한 해결사' ☎110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지난해 민원 215만건 상담처리

문자상담은 물론 장애인 위한 화상수화·채팅상담도
설 연휴 기간에도 교통상황·응급의료 등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110콜센터가 '국민 해결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110콜센터의 상담원이 각종 생활 민원과 어려움을 친절하게 상담해준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215만3644건의 민원을 상담해 처리했다. 휴대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 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수화 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110콜센터는 이번 설 연휴 기간(30일~2월 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10콜센터 이색 상담 사례>

◆ 1년째 끊어진 다리

경남 어느 시골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전화를 거셨어요. 1년 전부터 마을에 하천 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작 전 마을의 다리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공사는 1년 넘도록 진척이 없어 마을 농부들은 먼 길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경남도청으로 문의를 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전했고, 며칠 후 민원인에게 확인 해보니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기뻐하시는 민원인을 보니 상담했던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 공포스러운 느티나무

집 바로 옆 공원에 있는 느티나무가 무섭다는 일도 있었어요. 그 민원인은 오랜 세월 자란 느티나무가 언젠가 자기 집 담을 훌쩍 넘도록 커버렸다더군요.

경관은 좋지만 아이들이 그 나무를 타고 민원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생기고,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을 넘나들면서 다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지가 벽을 밀어내며 집에 균열이 갔고, 나무를 타고 도둑 들어오는 것도 염려된다고 하시더군요.

구청·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110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현재 그 느티나무는 다른 공원으로 이식돼 잘 자라고 있어요.

◆ 수술받게 도와주세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을 도운 사례입니다. 전화를 건 민원인은 사촌 형이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촌 형에게는 연로하신 노모뿐이고 본인도 사업 실패로 도움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110콜센터로 전화를 했고, 민원인이 사는 대구 남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딱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대구 남구청 담당자는 긴급 의료비제도를 안내해드렸고, 이 돈으로 민원인의 형님은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아 최근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10콜센터 상담원이 장애인과 수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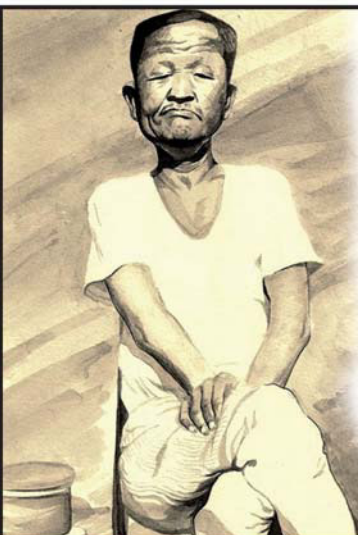
◆ 겨울인데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료를 체납해 여러 번 독촉을 받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십사 양해를 구했는데도 한전 직원이 전기를 차단했다며 민원인이 우시더군요. 강원도 산골이라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얼어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인도 계시다면서요.

한전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니, 갸우뚱하시며 가정집은 완전 차단이 되지 않을 텐데 혹시 사업장과 연결된 곳이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공장과 연결된 가정집이라는 말에 난감해하자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재차 강조했고, 다음날 잘 처리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시인 천상병 태어남

천진무구의 시인 천상병이 1930년 1월 29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나의 가난은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돈 몇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섶으로 때론 와서
괴로왔음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씽씽 바람 불어라……

알림

응답하라! 메트로신문이 드리는 설 선물

귀성길에 응모하세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은 설 연휴 귀성길, 고향 가는 길에 기쁘고 화목하게 다녀오시라는 뜻에서 애독자 여러분께 푸짐한 대박 선물을 드립니다.

2월 4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36명께 아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서울 시내 특급호텔 뷔페 식사권을 비롯해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스무디킹 상품권 등 갖고 싶은 아이템으로 구성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아파트단지 내 배포 등을 통해 기존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더욱더 질 높은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당첨자는 2월 5일 개별 통보합니다.

▲르네상스호텔 뷔페 식사권 2명(각 2장)▲스탠포드호텔 뷔페 식사권 2명(각 2장)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5명(각 2장)▲스무디킹 3만원권 상품권 8명▲박준뷰티랩 10만원권 상품권 4명 ▲전주친환경가마솥 양파즙 1박스(100포) 5명 ▲뮤지컬 '김종욱찾기' 관람권 10명(각 2장)

*실제 제품은 위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 이젠 옛말

쌀밥 하루 두 공기도 안 먹어 1970년 소비량 절반 못 미쳐

우리나라 국민이 쌀밥을 하루에 두 그릇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곡 소비량은 5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 부문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84g을 기록했다.

밥 한 공기를 쌀 100g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 두 공기 미만을 소비한다는 뜻으로, 지난 1970년의 374g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설 명절이 포함된 2월 소비량이 가장 많았고 여름휴가철인 8월이 가장 적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1인당 쌀과 기타 양곡을 합한 양곡 소비량은 75.3kg으로 전년보다 1.8kg(2.3%)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한 1967년의 196.8kg과 비교하면 38.3%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양곡 소비량은 1981년 159.8kg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양곡 중 쌀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7.2kg으로 전년보다 2.6kg(3.7%) 감소했다.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의 136.4kg과 비교하면 49.3% 수준에 불과할 만큼 소비가 줄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빠지지 않는 '점핑' 28일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유아체능단 별들의 잔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인3역' 조건만남 사기에 억대 뜯긴 40대

서울 은평경찰서는 일명 '조건만남'을 시켜준다며 수억원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소라넷'에 조건만남을 주선해주는 카페를 개설하고, 그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원 A(43)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인터넷 클럽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도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단 한 번도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러 명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음성을 변조해 1인3역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윤다혜기자

70년 전통의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백화수복 전속모델
김수미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설날에는 백화수복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명절에는 역시 백화수복입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白花
고급청주
백화수복
白花壽福
대한민국 대표청주
SINCE 1945

정보 불법수집 미 NSA '앵그리버드'도 털었다

인기 스마트폰게임 '앵그리버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정보통신본부(GCHQ)가 낚아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NSA와 GCHQ 문건을 토대로 이들 기관이 스마트폰 게임 앱이나 지도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GCHQ 자료에는 17억 건 이상 내려받기를 기록한 앵그리버드를 사례로 들어 어떤 개인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문건도 있다. 또 페이스북 앱, 사진 공유 앱 플리커, 소셜 영화 앱 플릭스터 등을 언급한 자료도 들어있다.

이들 스마트폰 앱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자의 나이·성별·연령, 해당 스마트폰의 설정, 방문 사이트, 내려받은 문서, 친구 목록에서부터 사용자의 정치적 선호나 성적 취향 등 다양하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앵그리버드 제작사인 로비오는 "NSA나 GCHQ가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SA는 "일상적으로 미국민의 스마트폰이나 SNS를 수집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의 유효한 정보 대상을 상대로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상이 사용하는 수단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사죄하고 또 사죄하는 독일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하원(분데스탁)에서 열린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식에 참석한 러시아 작가 다닐 그라닌(오른쪽 지팡이 든 사람)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그라닌은 1944년 나치 군대가 레닌그라드를 점령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신화 연합뉴스

日 "독도는 고유영토" 교과서 지침에 명기…모든 중·고교 교과서에 영유권 주장 담길 듯

미래세대 '세뇌'하려는 일본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전날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담겨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학 사회의 역사 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 사항이 나와있으며,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해설서도 바꾼다. 이번 개정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 같은 조기 개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도발'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버스 자리 안 비켜줘? 女무릎에 앉은 남성

중국 버스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황당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26일 후베이성 우한(武漢)시의 버스에서 20대 여성이 옆자리에 자신의 짐을 놓고 앉아있었다. 잠시 후 40대 중년 남성이 탑승하더니 이 여성의 옆으로 가서 짐을 치워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뒤쪽에 빈자리 많으니 그쪽에 앉아라"며 짐을 치우지 않았다. 남성 역시 쉽게 굽히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좌석에 짐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주변 승객들은 싸움이 커질까봐 여성에게 짐을 그냥 치우라고 했지만 이 여성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실랑이 끝에 여성의 무릎 위에 앉아버렸다. 남성은 차에서 내릴 때까지 약 20분간을 움직이지 않았다. 여성도 굳은 얼굴로 몸을 옆으로 살짝 돌린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정리=조선미기자

"쿠바 미용사 솜씨 좀 볼까요" 반기문(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다. 반 총장은 아바나에서 열리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참석차 쿠바를 방문했다. /AP 연합뉴스

中당국 "AI 공기 통해 사람 전염"

중국에서 최근 확산하는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공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6일 발표한 2014년 판 H7N9형 AI 진찰 및 치료 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밝힌 적은 있지만 중국 당국이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닭, 오리 등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며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규모로 사람 간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보고된 H7N9형 감염 환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조선미기자

미군 개당 2달러 '전투용 껌' 보급

미국에서 장병들을 위한 '전투용 껌'(사진)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등에 따르면 육군외과연구소(AISR)는 장병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전투용 껌을 개발해 실전 보급하고 있다.

AISR는 7년간의 연구 끝에 플라크 차단과 치주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난 껌을 개발했다. 육군은 위험 임무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껌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전투 상황에 있거나 훈련지에 있는 장병들에게 식후 20분 동안 이 껌을 씹도록 권하고 있다.

육군이 전투용 껌을 개발한 것은 장병들의 치아 상태가 악화, 전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입대한 군인의 절반이 3개 이상의 충치를 갖고 있다. 또 치과 문제로 인해 철수하는 장병의 수가 전체 환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한 해 장병과 가족들의 치과 진료 예산은 1억 달러(약 1080억원)가 넘는다. 페퍼민트 맛이 나는 전투용 껌의 가격은 현재 개당 2달러(약 2160원) 정도다. /조선미기자

HAPPY SHAKE!

올 겨울이 **처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100%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1916.93 (+6.59)

코스닥 509.29 (+1.78)

금리(국고채 3년) 2.87 (−0.01)

환율(원·달러) 1081.20 (−2.40)

뉴스&뉴스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 재발급 및 해지 시 자동이체 변경 등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 시 자동이체 변경 부분을 고객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 유선으로 반드시 결제 수단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재발급 시에도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한다. /전효진기자

인구이동 40년만에 최저

●청년층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구 이동이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741만2000명으로 1979년(732만4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전년보다는 1.3%(9만5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지난해 14.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973년(14.3%)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 전입률은 세종(20.4%), 인천(16.3%), 경기(15.7%) 순으로 높았고 전출률은 서울(16.2%), 광주(15.7%), 인천(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전세 주거비, 자가의 56%

●전세가격 상승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용은 자가 보유자의 5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이 있는 전세 가구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세와 자가의 거주비용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전세 세입자가 주택 매매를 늦출 만한 경제적인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각종 회원등록때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앞으로 금융·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백화점 회원 등록,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민지기자

삼성그룹 '총장추천제' 백지화

대학서열화 논란 일자 서류전형제 등 채용제도 개선안 전면 유보

삼성이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학 총장추천제'와 '서류전형제'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이인용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대학 총장추천제, 서류심사 도입을 골자로 한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최근 자사의 채용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총장추천제, 서류심사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SSAT에 연간 2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고, 삼성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과열 양상이 벌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한 스펙 쌓기 경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대학 총장추천제의 경우 각 대학의 불만이 커지고 대학서열화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이번에 전면 유보키로 했다.

이 사장은 "기존 SSAT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발표했지만, 대학 서열화와 지역 차별 등 뜻하지 않았던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장은 특히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초 총장추천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희생 정신, 인성 등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찾아서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논란이 일면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서류전형 등도 모두 유보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채용제도 개편안을 도입하는 계기였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해 채용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은 이에 따라 올해 진행되는 상반기 채용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며 향후 채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삼성은 향후 학벌·지역·성별을 불문하고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열린 채용' 정신을 유지하며 채용제도 개선안을 계속 연구·검토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아르헨 쇼크' 털어낸 코스피 28일 코스피가 '아르헨티나 쇼크'를 털어내고 반등해 전날보다 6.59포인트 오른 1916.93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81.2원으로 2.4원 내려갔다. 사진은 이날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하이일드펀드 수익률 기특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대안 투자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글로벌하이일드채권펀드의 평균 3개월 수익률은 1.95%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주식과 채권에 두루 투자하는 해외 혼합형(1.97%)과 비슷한 수준이며 채권에만 투자하는 해외 채권형(0.70%)은 훌쩍 웃돌았다. 이 기간 해외 주식형이 2.31%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채권 관련 펀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펀드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주식형(−4.67%), 국내 혼합형(−1.32%)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국내 채권형은 0.17%로 소폭 성과를 냈다.

유승우 동부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이일드채권은 미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유럽 하이일드채권은 미국에 비해 낮은 부도율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추진

금융위, 관련산업 경쟁력·소비자 선택권 제고 목적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상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업계의 상품 서비스 다변화, 업무 채널 다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보험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도입이다.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온라인 시장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의 영업 채널이다.

상품 외에 표준화된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보험슈퍼마켓이 도입되면 설계사 대리점 등 대면 영업의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영업 방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우선 시장 원리와 공공성 유지를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가 상품 간 보장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큼 서로의 협조와 역할 분배 또한 필수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보험 산업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전문가와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일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pjw89@

지혜의 시대를 여는 지식 네트워크 중심대학

지식이 모여 사랑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고 인생을 배우는 대학

2014학년도 신·편입생 추가 모집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자연과학대학 | 농학과, 가정학과(가정관리학 · 식품영양학 · 의상학 전공),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프라임칼리지 | 금융 · 서비스학부(회계금융 · 서비스경영 전공), 첨단공학부(산업공학 · 메카트로닉스 전공)

모집기간 2014. 1. 30(목) ~ 2. 7(금)

‘KT 구원투수’ 첫 행보, 급여 30% 자진삭감

지난 4분기 당기순손실 3007억 ‘최악의 실적’ 황창규 회장 비상경영 선포 “사상 최대 위기”

KT는 2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황창규(사진) KT 회장은 27일 취임 직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28일 오전 9시 KT 분당 사옥에서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KT는 핵심인 통신 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 데다 비통신 분야의 가시적 성과 부재,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KT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소명을 받은 만큼 사활을 걸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이날 KT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494억원, 당기순손실 300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는 등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황 회장은 비상경영 실천과 관련, 기준급의 30%를 반납하고 장기성과급 역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의 올해 연봉은 지난 2012년도 이석채 KT 전 회장 대비 6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 역시 기준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 회장과 임원들의 연봉 반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인사에 따른 임원 수 축소와 더불어 약 2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열사를 포함해 불요·불급·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경영도 도입한다. 황 회장은 각 사업 분야 조직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되 부문장 책임하에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하고 부진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황 회장은 “지금처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로가 가족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다독이고 격려해 위기 극복을 넘어 ‘1등 KT’로 도약하는 신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전세민의 ‘내집 환승역’ 될까

전국 8곳 연내 전철 개통… 주변 수혜단지 주목

올해 전국적으로 8곳의 전철 개통을 앞두고 수혜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로 외곽과 중심지를 잇는 이들 전철망이 개통할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싼 도심 거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황금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마곡나루역이 6월 개통한다. 이 역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간 무정차 통과했지만 오는 6월 마곡지구 아파트 입주에 맞춰 운영에 들어간다.

SH공사가 강서구 마곡지구 7블록에 공급한 ‘마곡지구7단지’가 지구 내 아파트 중 특히 마곡나루역에 가깝다. 또 강서구 방화동 ‘마곡푸르지오’도 신방화역에 이어 마곡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다.

경의선 용산~공덕 구간 1.9km도 연내 완공된다. 이로써 용산에서 문산을 잇는 경의선 전 구간이 개통돼 고양·파주 일대 아파트가 수혜를 받게 됐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A14블록 ‘교하 롯데캐슬’은 차량 3분 거리에 경의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다. 이외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는 탄현역을 도보로, 고양시 식사동 ‘휴먼빌 일산위시티’는 백마역을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경의선(문산~용산)과 인천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수색연결선도 올해 개통된다. 이로써 인천 서구, 계양구 일대 주민들은 인천공항에서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구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지역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구 검암동 ‘서해 그랑블’ ‘풍림 아이원2차’, 당하동 ‘KCC 스위첸’ 등이 수색연결선 검암역 이용이 쉬워 용산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인천공항철도 영종역과 청라역도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운서역과 검암역에 의존했던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내 주거민들이 서울 도심까지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동문건설이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분양 중인 ‘청라 동문 굿모닝힐’과 한라건설이 공급한 ‘한라 비발디’ 등이 청라역을 차로 5분 이내 이용 가능하다. 우미건설이 인천 중구 중산동에 지은 ‘하늘도시 우미린1단지’도 영종역까지 차량 3분 거리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철 개통으로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방탄소재로 만든 캐리어 7만원대 28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항공기 및 방탄유리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여행용 캐리어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7만9000원부터 11만9000원. /연합뉴스

프리랜더의 후속 모델 혹한테스트 장면 포착

랜드로버의 막내 ‘프리랜더’의 후속 모델이 2015년 데뷔를 앞두고 혹한기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오토스파이넷’(www.autospy.net)과 오토미디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리랜더 후속 모델은 기존 모델의 프레임을 버리고 이보크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며,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적당히 섞은 스타일을 하고 있다. 차체는 구형보다 커졌고 7인승으로 설계된다.

엔진은 150마력, 190마력의 디젤과 240마력 가솔린 터보 등 3가지를 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옵션으로 ZF 9단 자동변속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프리랜더는 미국 시장에서 LR2로 판매되고 있는데, 프리랜더 후속 모델이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바꿀지도 관심사다. 프리랜더 후속의 데뷔 무대는 오는 10월 파리 모터쇼 또는 2015년 제네바 모터쇼가 유력하다. BMW X3와 아우디 Q5, 메르세데스 벤츠 GLK 등이 경쟁 모델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삼성전자·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주춤

지난 4분기 실적, 3분기·월가 기대에 못미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성장성에 의문부호가 켜졌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3억 대 이상 판매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은 8600만 대로 직전 분기인 3분기 8840만 대와 견줘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분기(6940만 대), 2분기(7600만 대)를 거쳐 3분기까지 이어온 삼성전자의 판매량 신기록 행진도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4분기 판매량 감소는 애플이 아이폰5S를 중국과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과 NTT도코모를 통해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5100만 대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가의 기대치인 5500만 대에는 못 미친다.

시장점유율도 예전 같지 않다.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3분기 35.2%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가 4분기 29.6%로 추락했다. 애플의 4분기 점유율도 17.6%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올 1분기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4월 ‘갤럭시S5’ 출시 전까지 기존 모델로 버텨야 한다. 애플도 올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4500만 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황금 알을 낳았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업체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maeil

하늘과 땅에 한점 부끄럼 없이,

상하목장은 2008년부터 유기농의 착한 혁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땅을 깨끗하게, 풀을 건강하게, 유기농 목장에서 유기농 공장으로 그리고, 신선한 배송 시스템까지-
당신에게 온전한 유기농을 전하기 위해 상하목장은 처음 약속 그대로 착한 혁명의 길을 갑니다

유기농우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 14-13-6-2호

유기요구르트
컨트롤유니온
유기 004-00005호

유기저지방우유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유기 002-00033호

유기떠먹는요구르트
유기저지방요구르트(플레인)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유기 제 003-001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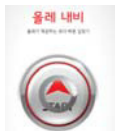
HACC적용제품
주문 및 고객상담 : (02)2127-2114 http://sanghafarm.maeil.com 유통기한 확인하여 제품선택 올바르게

| 상하목장 | 하늘 상(上), 땅 하(下), 하늘이 주는 자연 그대로,
땅의 사람이 정직하게 담아 전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큰행님 어디쯤 온겨? 내비에 물어봐

더 똑똑해진 이동사 내비 앱

최근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기보다 스마트폰에 이동통신3사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귀성·귀경길에 이통 3사의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보다 빠른 길 찾기에 나설 이들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통 3사의 내비게이션 앱은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도 정보가 보다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기존 내비게이션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SKT 'T맵 버디'
연락처 친구 5명까지 위치정보 공유 가능해

KT '올레내비'
데이터 2MB만 있으면 서울~부산 안내 충분

LG유플 'U+NaviLTE'
업계 첫 3D 풀 클라우드 지도 업데이트 필요없어

SK텔레콤의 플랫폼 자회사 SK플래닛이 제공하고 있는 'T맵'은 시간대별, 구간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귀성·귀경길을 안내한다.

특히 최근 기존 'T맵'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T맵 버디'를 출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반으로 최대 5명까지 친구를 초대해 그룹을 만들고 그룹 내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친구들 간에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지도 기준, 내 위치 기준, 목적지 기준 등 다양한 화면으로 보여주며, 그룹 멤버들에게 10초간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워키토키' 기능도 탑재해 간편하게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올레내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올레내비는 2010년 9월 처음 선보인 후 현재까지 1200만 건의 내려받기 수를 확보한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앱이다. 데이터 사용량도 서울에서 부산 기준으로 약 2MB 수준이어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량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KT는 올레내비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자신만이 아는 지름길이나 정체 시 우회 도로 등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경로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공유 기능은 고객들이 직접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갔던 경로를 공유하고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올레내비 최신 버전(v3.4.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경로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U+내비LTE'는 업계 최초로 3D 풀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해 별도의 지도 다운로드나 업데이트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지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도착알리미' 기능은 U+내비LTE에서만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대방 전화번호를 U+내비LTE에 사전 등록하면 설정된 시간 단위로 운전자의 현재 위치 및 도착 예정 시간을 등록된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또한 내비게이션 이용 중 전화가 걸려와도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통화할 수 있는 '통화도우미' 기능을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유저들 복주머니 '세뱃돈보다 아이템'

연휴 심심타파! 게임업계 신나는 특별 이벤트

설에 게임을 하면 더 즐겁다. 평소보다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아이템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의 인기 MMORPG '마비노기 영웅전'에서는 2월 13일까지 설날 이벤트 전투인 '쫄깃쫄깃 맛 좋은 떡'을 진행한다.

전투에서 '찹쌀떡 몬스터'를 제압하면 얻을 수 있는 '흰 떡 반죽'을 모아 '맛있는 떡국'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떡국'을 만들 수 있고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떡국'을 콜헨 마을 여관의 NPC '이상한 여행자'에게 주면 '쫀득한 찹쌀떡' '치프틴 주니어 아씨·대감' 애완동물 등 다양한 아이템을 담은 '여행자의 설날 복주머니'를 받을 수 있다.

'피파온라인3'에서는 2월 6일까지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 요일에 따라 시즌별 '전설 포함 톱 100' 선수카드를 지급하며, PC방에서 1시간 이상 플레이한 유저에게 전설선수를 포함한 '09 톱 100', 10만 EP 등 푸짐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브론즈 패키지를 제공한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연을 타고 게임을 즐기는 '장공의 대추격전', 타자 게임 형식의 '세뱃돈 디펜스', 100명이 동시에 즐기는 OX 퀴즈 등 미니게임을 업데이트한다.

엠게임의 코믹 무협 MMORPG '열혈강호 온라인'에서는 2월 12일까지 '말말말' 이벤트를 한다.

현발파 장문 NPC를 찾아가 '설날 손싸움 놀이' 의뢰를 받은 후 대표 NPC와 가위바위보를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생명력, 내공, 공격력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련홍 NPC를 만난 후 몬스터 사냥에 성공해 마패와 복주머니를 모으면 아이템, 기연, 경험치 및 게임머니 획득률이 2배로 증가하는 청마 버프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NHN엔터테인먼트의 한게임은 '고스톱' 이용자를 위해 웹을 전면 개편했다. '입장 버튼'을 확대해 보다 빠른 게임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영역을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세뱃돈 복주머니' 이벤트도 연다. 진행 판 수에 따라 금실 복주머니와 홍실 복주머니가 지급되는데, 금실 복주머니는 최소 2000만 냥에서 최대 1억 냥까지, 홍실 복주머니는 최소 5000만 냥에서 최대 100억 냥까지 들어있다.

모바일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CJ E&M 넷마블은 2월 2일까지 설 이벤트 페이지(event.view.netmarble.net/www/event/10)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마블' '마구마구 2014' 등 넷마블 인기 모바일게임 9종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 쿠폰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12종의 모바일게임별 이벤트도 시작했다. 캐주얼 게임 '모두의마블'은 모든 접속자에게 신년 운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랜만에 접속한 휴면 이용자들에게는 다이아 200개, 퍼스트 입장권 5장, A등급 이상의 행운 아이템 등으로 구성된 복귀 패키지를 지급한다.

/박성훈기자 zen@

리조트 '럭셔리 민속촌'이라 불러다오

휘닉스파크에서 합동차례 대명리조트 전통놀이전… 나들이족 위한 이벤트 푸짐

즐거우면서 분주한 연휴,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나 친척과 그동안 못다 한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바쁜 설날이다. 올해 설날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리조트를 찾아 추억 가득한 설날을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합동 차례부터 세계 전통놀이까지

먼저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파크가 다양한 이벤트와 패키지를 준비했다. 설 당일인 31일에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합동 차례 행사가 마련되고 차례 후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차례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도 이어진다. 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휴식을 위해 리조트를 찾은 고객이라면 블루캐니언 스파 입장권 사전 예매 이벤트를 통해 입장권을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다.

설 연휴동안 세계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여는 하이원리조트에서 모델들이 우리 전통놀이인 투호놀이를 시연하고 있다.

대명리조트는 리조트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쏠비치 호텔&리조트에서는 민속 명절 설을 맞아 민속놀이 체험전, 떡메 치기, 강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2월 1일에는 민속놀이 왕중왕전 행사도 열려 흥미를 더한다.

대명리조트 양평에서는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송편 만들기 등의 푸드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지며 리조트 내 이탈리안 레스토랑 빠띠오에서는 가족 할인 이벤트와 룰렛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명리조트 경주는 전통놀이 한마당, 만두 빚기 체험, 타로카드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대명리조트 변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훈 및 덕담 써주기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또 하이원리조트는 '세계 전통놀이 즐기고, 복 받으세요~'라는 주제로 세계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투호를 비롯해 눈을 감고 얼굴을 그리는 일본 명절놀이 후쿠와라이, 프랑스식 구슬치기 페탕크, 우리나라 박 터트리기와 비슷한 멕시코의 피나타, 코코넛을 신고 달리는 태국의 전통놀이 등 세계의 10가지 복놀이 코너를 운영한다. 게다가 무료 차 시음회, 페이스페인팅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이와 함께 용평리조트에서는 전통 차례상 차리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양지 파인리조트에서는 새해 운세를 점 쳐볼 수 있는 토정비결을 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대항 윷놀이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 속초의 설악파인리조트에서도 가족 대항 윷놀이가 진행되며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는 설을 맞는 고객들을 위해 눈썰매장 하단 등지에 민속놀이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세배·덕담·윷놀이…호텔마다 얼쑤~!

객실 포함 설 패키지 다양

호텔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실속 있게 보낼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고향만큼 포근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즐겨보자.

◆설날에만 만날 수 있는 객실 패키지

먼저 명품 호텔들은 설날을 맞이해 특별 객실 패키지를 선보였다.

콘래드 서울은 다음달 2일까지 가족 또는 친구들과 설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위시 유어 럭' 패키지를 준비했으며 패키지에는 100%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설맞이 '행운의 윷놀이'와 경품 이벤트도 포함된다.

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도 같은 기간 동안 호텔 객실에서의 1박과 수영장·피트니스·골프장 무료 이용이 제공되는 '2014 행운 가득 설날 패키지'를 진행한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슈페리어 객실 1박과 세뱃돈 3만원, 사우나·피트니스 2인 이용권이 포함된 '설맞이 패키지'를 연휴 기간 동안 선보이며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역시 연휴 기간 말발굽 모양의 쿠키와 인형 등 청마의 해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달려라 말(馬) 패키지'를 준비한다.

◆즐거움과 휴식이 가득한 패키지

이와 함께 호텔들은 명절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한 아내 사랑 패키지 등의 재충전 이벤트도 마련한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다음달 2일까지 온 가족의 신나는 설 연휴를 위한 '새해 놀이 패키지'를 출시한다. 고객들은 명절을 맞아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종이접기 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도 가족 혹은 친구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설날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드림 2014 패키지'를 선보이며 롯데호텔서울은 설 연휴를 맞아 복잡한 일상을 떠나 호텔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을 위한 '2014 설 패키지'를 2월 4일까지 실시한다.

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2월 3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설 믹스앤매치 패키지'를 준비하며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실속 있는 가격의 '복(福)@노보텔 강남의 신년맞이 패키지'를 다음달 4일까지 선보인다. /황재용기자

영국·제주 하늘길 인심 활짝

항공사 프로모션 눈길

항공사들이 설 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는 신풍속도에 맞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열고 직장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다양한 혜택…알뜰여행 기회

먼저 영국 최대 항공사 영국항공이 새해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코노미 클래스 60만원, 프리미엄 이코노미 120만원, 비즈니스클래스 250만원부터의 초특가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마일리지도 100% 적립 가능해 런던 왕복 여행을 한 마일리지로 서울~오사카행 왕복 여행도 즐길 수 있다. 출발일은 3월 31일까지다.

스톱오버를 통해 한 번의 여행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 많은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인 프로모션도 있다.

캐세이패시픽이 오는 31일까지 캐세이패시픽 또는 드래곤에어를 통해 홍콩을 경유해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탑승객들에게 무료 홍콩 투어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여행 가능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캐세이패시픽이 취항한 홍콩국제공항이 홍콩 도심과 가까워 다양한 루트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6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제주발 탑승 고객에게 총 2만 장의 JDC 제주공항 면세점 10%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 행사가 종료돼도 이스타항공 탑승권을 제출하면 5%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대학생 120만명 수혜금액 크게 늘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
C학점 받아도 한번은 지원

◆국가재원장학금 예산 확대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액 및 지급률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3년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2014년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100%)	(100%)	(100%)	(75%)	(55%)	(35%)	(25%)	(15%)	(15%)
증액		–	–	180	157.5	112.5	45	22.5	–	–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9년 설립된 이후, 국가장학제도의 통합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장학사업을 실행해왔다.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로 시행된 국가장학금은 기존의 복지장학제도를 확대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등을 합하면 올해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나 늘어나서 3조7000억원, 총 120여 만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최근 10년간 상승 일변도였던 등록금 인상률은 201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4.3%)가 됐다.

실제로 지난 해에만 117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체 대학 재학생 204만 명 대비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에는 수혜 대상도 더 늘어나 약 120만여 명 이상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실 수혜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돼 차이가 나지만, 산술적으로는 1인당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 등 저소득층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대학생은 더 적은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려면 대학의 총 등록금이 약 14조원(2011년 기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신설로 약 1조원 정도의 힘을 보탰고, 기존 교내 장학금이 약 2조원 정도이므로 정부가 4조원을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이 완성되는 것이다. 올해 3조7000억원을 정부가 투입했고 내년에 3000억원을 더 투입하면 드디어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 완성된다. 올해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약 48%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가장학금(Ⅰ, Ⅱ유형)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명실공히 대학생이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할 국가장학제도로 자리 잡았다. 국가장학금의 수혜 요건은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는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학생의 의지와 능력을 반영하며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 기존에 운영돼 온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성적우수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의 재원까지 합치면 2014년 국가장학사업 전체 예산은 3조7000억원에 이르러 불과 3년 전인 2011년 약 5000억원이던 것에 비하면 약 7배 정도 가파르게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집중 지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작년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지원액을 크게 높였다.

특히 전액 장학금(국공립대 기준)을 지원받는 대상에 기존 기초수급자와 1분위에 2분위까지 포함시켰고, 3~6분위도 수혜 금액을 최대 180만원까지 늘렸다. 이처럼 상대적 저소득층을 폭넓고 더 깊이 있게 지원해 해당 학생이 학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려고 노력 중이다.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 신설

소득 8분위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신입생 중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에게는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입생부터 시작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17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 인재 장학금 신설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와 교내 장학금 신설에 적극적인 지방대학에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 장학금을 1000억원 신설해 지원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되, 정부는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이나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C학점 경고제

저소득층일수록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보내느라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성적인 B학점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경제 사정이 매우 곤란한 기초수급자와 하위 1분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더라도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학기에도 다시 B학점 미만이면 그때는 지원을 못 받는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근로장학금 시급 교내 8000원·교외 9500원으로 인상

올해 국가근로장학금 규모가 1943억원으로 확대돼 1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장학금 시급 단가도 교내 근로는 8000원, 교외 근로는 9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채로운 근로 경험 제공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자 올해 국가근로장학금은 지난해 대비 512억원 늘어난 1943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공공기관·정부 부처·기업 간 협업으로 근로장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장학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4년간 동결됐던 장학금의 시급 단가가 교내 근로의 경우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교외 근로의 경우 8000원에서 9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익성을 갖춘 일자리를 집중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이들 기관과 협업해 2017년까지 500개의 '우수근로장학기관'을 선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양질의 직업 체험 기회를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3차에 걸쳐 신청받고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다음달 7일 ▲2차는 3월 24~28일 ▲3차는 5월 19~23일로,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리 2.9% '가뿐' 취업후 상환 '홀가분'

학자금 대출 3월 25일까지 신청

성적 안돼도 특별추천 가능 학기당 150만원 생활비도

대입을 앞둔 학생으로서도, 예비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도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6%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 금리는 그 이상이다. 예비 대학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마련과 생활비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사업 외에도 2.9% 낮은 금리로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학기까지 정부에서 보증하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했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7%대의 대출금리를 5%대로 낮췄다. 이후 정부의 확고한 학자금 정책 기조 및 장학재단의 재원 조달을 통해 2013년 1학기부터 2.9%의 대출금리로 시중 금리 중 최저 수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73만명(2012년 기준)의 대학생이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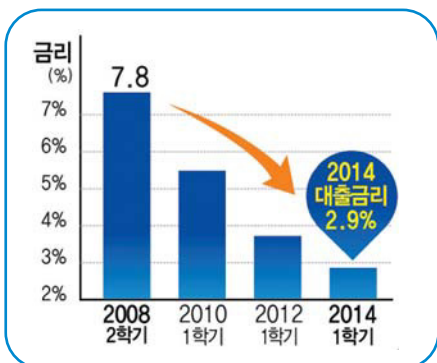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된 든든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전액을 국가로부터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다. 든든학자금대출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중 이자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도입 초기 높은 금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대출 실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든든학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자격 요건 중 성적기준도 '직전 학기 C학점 이상(7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며 든든학자금대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성적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든든학자금대출을 수혜받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든든학자금대출은 제도 시행 4년 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2학기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 이용 건수 38만 건 중 약 28만 건이 든든학자금대출, 약 9만 건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었다.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 학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비대출도 지원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 학기를 시작하더라도 대학생에게 개강 후 소요되는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이에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로 정부 지원 생활비대출제도가 마련돼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든든학자금은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은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용 자격은 등록금 대출과 동일한 성적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든든 학자금 금리 인하

◆성적·소득 기준 충족으로 제도 이용 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및 졸업 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은 신청 학생의 연령과 가구 소득 분위에 근거해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든든학자금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가구 소득 분위 7분위 이하인 대학 학부생(신입생 포함)이 이용 가능하다. 가구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대출은 상환 조건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연계상환 방식으로, 정부가 지정한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 연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자 납부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이용자 본인인 학생이 직접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다음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한 눈에 보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구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일정	2014.1.8~3.25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014.1.2~1.17
신청자격	만35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 분위 7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	만 55세 이하이며 가구소득분위 8분위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원)생	연령제한 없으며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
대출한도	대학의 성격에 상관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최대 한도 없음)	[대학/전문대학]4000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6000만원 [의/치의/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9000만원	대학의 성격에 상관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최대한도 없음)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대출금리	2014.1학기 기준 연 2.9%(변동금리)	2014.1학기 기준 연 2.9%(고정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소득연계 상환방식: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시 상환개시	균등분할 상환방식:거치기간(재학 중)이자납부, 학생본인이 설정한 상환기간 도래시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개시	균등분할 상환방식:졸업 후 2년 거치기간 후,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전액 무이자 대출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외에도 농어촌 출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자금융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를 위한 제도로 성적과 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게다가 졸업 후 2년 뒤부터 대출금을 상환해 재학 기간 동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다.

◆자격 조건 안 되면 특별추천제도 활용 문의

한국장학재단은 원칙적으로 학자금대출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지만, 미충족자에 대해서도 소속 학교에서 특별추천을 할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성적 기준이 70점 이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정규 학기가 지난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대학이 특별 추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윤다혜기자

응답하라! 조상님의 그때 그시절 오락

서울 도심 20여곳 민속놀이·문화체험 한마당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역귀성이 늘고 있고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도심에서 충분히 설 분위기를 내며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서울 전역 20여 곳에서 펼쳐지는 40여 개의 행사들을 만나 보자.

◆명절엔 민속놀이가 최고!

먼저 시민청·운현궁·서울광장·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가족·친척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린다.

지난 1월 12일 첫 돌을 맞은 시민청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윷놀이·투호·사방치기·오징어 놀이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가 마련되며 3호선 안국역 인근 운현궁에서도 같은 기간 각양각색의 설날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

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도 연휴 동안 떡국 나누기, 새해 소원 적기 등 새해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서울광장에서는 30일까지 팽이치기·투호·대형 윷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산공원·북서울꿈의숲 등 서울 시내 11개 공원에서도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비롯해 공원마다 개성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에서는 억새로 만든 미로를 체험하면서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전통 얼음썰매장에서 겨울을 만끽하며 떡메 치기, 하회탈 만들기 등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산공원에서는 '우리 가족 설날놀이'가 준비되며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와 함께 추억의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역사 배우고 전통문화 체험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암사동 유적지에서도 설맞이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31일 오후 ▲체험마당 ▲놀이마당 ▲겨루기마당 ▲공연마당으로 구성된 '2014 설 박물관 큰잔치'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은 백제 수도 한성의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몽촌토성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백제의 꿈, 왕도한산'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31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앞 광장에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마련했으며 로비에서는 평양예술단의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전통놀이 체험 ▲선사체험 두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로 재충전의 시간을!

남산국악당·삼청각·청춘극장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남산국악당에서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마당극 '허생전' 앙코르 공연이 펼쳐지며 삼청각에서는 흥겨운 전통 공연, 특별 점심 메뉴, 전통차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런치 콘서트 '자미'가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이어진다. 중구 청춘극장은 29일에는 '우리 민요 한마당' 공연을 선보이고,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추억의 영화 '내일의 팔도강산'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한강공원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설맞이 유람선 이벤트'가 진행되며 광나루 한강공원 광진교 8번가에서는 청년 민간외교 단체인 '아리랑 유랑단'이 특별 공연을 선사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해외여행 간 옆집 안부럽네

가족 나들이 명소 추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연휴인 만큼 성묘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를 소개한다.

◆감성 넘치는 '파주 헤이리 마을'

서울 근교에 위치한 파주 헤이리 마을은 미술인·음악가·작가·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가들이 만든 문화·예술 공간이다. 부모들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 박물관부터 전통문화 체험, 도자기 만들기, 인형 만들기 등 평소 하기 힘들었던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좋다. 또 모든 건물이 3층 이하로 세워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고 산·늪·개천 등의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의 명소 '신세계 센텀시티'

복합 쇼핑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도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들르기 좋은 곳이다. 영화를 보고 아이스링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온 가족이 따뜻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센텀시티 내의 스파랜드는 온천수와 찜찔방이 잘 갖춰져 있어 명절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으며 5층에 위치한 '시네드 쉐프'에서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영화를 볼 수도 있다.

◆제주여행 간다면 '헬로키티아일랜드'

제주도에서는 지난 12월 문을 연 헬로키티아일랜드(사진)가 눈에 들어온다. 헬로키티아일랜드는 전 세계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과 어른들이 볼 만한 전시·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연휴 동안에는 '헬로키티의 꿈 희망전'이 열리고 있어 재미를 더한다.

/황재용기자

마우스 대신 장구채 잡으니 절로 어깨춤

명절엔 전통 체험하세요

/위크온 제공

이제 곧 대명절 설이다. 집에서 특선영화만 보지 말고 올해는 가족과 함께 재밌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명절 분위기를 내기에는 전통놀이 만한 것이 없다. 가족들과 전통 공연을 관람하거나 함께 어울려 민속놀이를 즐기다 보면 명절의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황성국 체험학습 포털 위크온 본부장은 "설을 맞아 전통 공연·공예품 만들기·전통놀이 축제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며 "명절에 전통의 의미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래 몇가지 프로그램을 추천해 본다.

◆관람과 체험을 한 번에! 일석이조 전통 체험

위크온에서는 전통 뮤지컬 '춘향연가' 관람과 장구 배우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사진)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이 인기다.

명동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미소 춘향연가'는 춘향전에 전통 춤·국악·풍물을 한데 버무린 한국 전통 뮤지컬로, 각종 국제 행사 및 해외 공연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와 함께 대장금·궁·주몽 등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의상 체험도 준비돼 있다.

한국등잔박물관 관람 및 공예 체험 패키지 상품도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도 어른도 신나는 전통 민속놀이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진행되는 서울눈축제에 오면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까치야 놀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설날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민속놀이 체험존에서 대형 윷놀이·널뛰기·민속 팽이치기·투호 던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눈싸움·눈썰매·에스키모 체험·빙어잡이 체험 등도 마련돼 있다.

한편 '까치야 놀자' 설날 이벤트와는 별도로 서울눈축제는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농경유물 전시관에서는 3월 16일까지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윷놀이·연 만들기를 비롯해 비석치기·사방치기·한지제기만들기·투호놀이·널뛰기·제기차기·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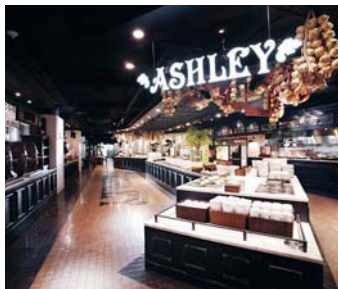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영농체험장에는 논에 썰매장을 마련해 논썰매를 탈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김학철기자

"여보~저녁 먹으러 나가자" 명절 외식족이 늘고 있다

온가족 함께하는 특선메뉴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명절의 재미 중 최고로 꼽힌다. 그러나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주부들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설을 앞두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명절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외식을 즐기는 '명절 외식족'들이 늘고 있다.

프리미엄 샤부샤부와 퓨전 한식 샐러드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로운 샤부샤부'는 남녀노소 모든 가족이 즐기기 좋은 음식점이다. 1등급 소고기와 해물로 구성된 샤부샤부 선택과 함께 7종의 신선한 채소와 퓨전 한식으로 구

성된 28종의 다양한 샐러드바 메뉴, 5종의 디저트는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다. 또 취향에 따라 칼국수와 채소죽까지 맘껏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요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꼽으라면 '애슐리'가 있다. 아메리칸 그릴&샐러드 애슐리는 평일 런치 9900원으로 60여 가지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애슐리 클래식 매장을 기본으로 한다. 호텔식 정찬·그릴·해산물·브런치 등의 콘셉트 매장들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 시즌마다 선보이는 시즌 메뉴들은 인기 만점이다.

프리미엄 푸드코트 '푸드폴리탄' 또한 각기 다른 스타일의 다양한 음식점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외식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곳은 코리안·오리엔탈·유로피안·웨스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약 13여 개의 요리전문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3월 평촌에서 시작된 푸드폴리탄은 '맛의 박물관'이라는 콘셉트로 평촌·대구·광주·야탑·중계 등 5개 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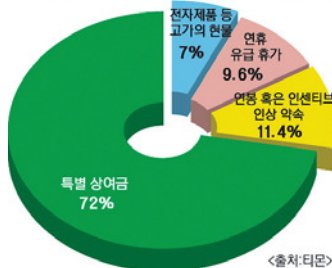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직장인 가장 원하는 선물은 현금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설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었다. 티켓몬스터가 설 명절을 맞아 20~40대 남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대다수가 회사로부터 받기 원하는 선물은 현금 형태의 특별상여금이었고, 반대로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생필품 선물세트로 나타났다.

설 선물로 회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설문에 72%에 달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현금 형태의 특별상여금을 꼽았다. 이에 비해 연봉 혹은 인센티브 인상에 대한 약속은 11%에 그쳐 당장의 보너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상여금보다 더 비싼 고가의 현물이 7%, 충분한 유급휴가는 9%만이 선택해 현금 선호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이런 직장인들의 바람과는 달랐다. 이번 설 선물로 회사에서 지급될 선물을 묻는 질문에 선물세트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6%만이 현금 보너스라고 답했다.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24%나 됐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받게 되는 선물세트 가운데 가장 받기 싫은 품목은 무엇일까? 상품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41%가 받고 싶지 않다고 답한 품목은 치약·샴푸 등의 생필품이었다. 20%는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물로 받는 것이 싫다고 꼽았고, 건강식품이나 과일·육류 등의 먹거리 선물세트는 각각 11%와 9%만이 선택해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제품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선물을 누구에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11%만이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다고 답해 90%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3%에 달하는 대다수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을 하며, 고마운 지인에게 한다가 27%, 어쩔 수 없는 인사치레를 위한 대상도 16%로 나타났다.

/정영일기자 prms@

"장난감 반값에 사세요" 롯데마트가 설을 맞아 2월 4일까지 전국 28개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다양한 인기 완구를 최대 50%가량 할인해 판매하는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를 진행한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완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과로·과식·과음>

과실주 마시고 '3과' 날리자

고칼로리 음식엔 복분자주·육류엔 산사춘 '제격'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3가지 키워드가 있다. 과로·과식·과음이다. 명절 기간 내내 분주하게 보낼 주부와 귀성·귀경길에 장시간 운전을 맡을 남편 모두 꿀맛 같은 연휴를 즐기지 못하고 피로 누적으로 과로에 지치기 쉽다. 또 풍성하게 장만한 명절 음식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쩍 허리춤에 살이 붙은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은 전통 과실주를 통해 다소 해결할 수 있다. 과실주에는 과일이 가진 다양한 효능이 발효와 숙성을 거치면서 듬뿍 담겨있기 때문이다.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시트르산 함량이 풍부한 매실은 '천연 피로 해소제'라고도 불린다. 이런 매실의 효능을 듬뿍 담은 매실주인 보해의 '매취순'은 땅끝마을 해남에서 재배·수확한 최상의 청매실

로 담가 풍부한 매실 향과 깊은 맛이 일품이다. 특히 영롱한 황금빛 색감과 달콤한 매실 향은 명절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어 가족 또는 지인과의 명절 술자리에 제격이다.

명절 기간 내내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때는 소화제를 먹는 대신 오미자주 한 잔이 도움이 된다. 오미자는 유기산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탁월한 과실 중 하나다. 국순당 '명작 오미자'는 국내산 오미자로 빚어 오미자의 가벼우면서 산뜻한 맛과 향이 입안에 여운을 남긴다.

전·갈비·떡과 같은 지방과 탄수화물 위주의 명절 음식 칼로리가 부담된다면 올해 설 명절에는 복분자주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복분자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흡수를 막는 효능이 있어 고칼로리의 명절 음식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보해 복분자주'는 국내산 복분자만을 엄선해 정성껏 빚은 전통 과실주다. 복분자 고유의 진한 맛과 향·빛깔·효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해주는 효능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 숙취 없는 명절 술자리를 즐기고 싶다면 배상면주가 '산사춘'이 좋다. 산사춘은 산수유와 산사나무 열매로 빚은 과실주로 단맛과 새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명절 육류 음식과 잘 어울린다.

/정영일기자

운세 공짜로 봐주고 해맞이 여행권 주고

유통업계 다양한 이벤트

유통업계가 신년 대목을 맞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료로 신년 운세를 봐주는 온라인몰부터 새해 다짐을 응원해 정동진 해맞이 여행권을 제공하는 커피전문점까지 소비자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했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새해 다짐을 메모한 인증샷을 카페 및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벤트를 벌인다. 가장 잘 작성한 최고의 '다짐 용자'를 각각 1명씩 선발해 정동진 해맞이 무박 커피 여행 상품권과 디지털 카메라를 제공한다.

식품기업 대상의 통합 온라인몰 정원e샵은 2014 새해맞이 무료 신년 운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e샵 회원 가입 및 로그인만 하면 다른 조건 없이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다. 무료 신년 운세 서비스는 2월 6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고려은단 '쏠라-C'는 새해 응원 이벤트를 벌인다. 새해를 맞아 지인들에게 응원과 덕담을 전하며 따뜻한 정을 되새기는 이벤트다. 쏠라-C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족·연인·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응원의 글과 함께 이벤트 스크랩 인터넷 주소(URL)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쏠라C 비타민 세트를 증정한다.

본죽은 2월 1일까지 신년 경품 이벤트를 열고 순금 10돈을 비롯해 백화점 상품권, 전복죽 모바일 교환권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모든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주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스무디킹은 새해의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점심 12시까지 '자몽티'를 41% 할인된 2900원에 판매한다. 자바씨티도 음료를 주문하면 동일한 음료를 한 잔 더 제공하는 1+1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마련된다.

/정영일기자

며늘아 '전 굽는 패션' 챙겨와~

일 할때 & 격식 차릴때 변신 필요한 명절코디 요령

오랜 시간 차를 타면 옷이 구겨질 텐데 뭘 입을까. 제사 음식 만들 때 편안한 옷은 없을까. 명절이면 여성들은 옷차림 고민에 빠진다. 디자이너 브랜드 투플라시보(2Placebo) 김세희 디자인 실장은 "명절에는 인사드릴 분과 차례상 준비 등을 고려해 멋스러우면서도 활동이 편한 옷을 고르되 격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귀성길 차안·음식 만들 땐 캐주얼룩

고향이 멀어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면 팬츠·점퍼 등 캐주얼룩이 알맞다.

좁은 차 안이지만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의는 간편한 레깅스나 신축성이 있는 팬츠를 선택한다. 상의는 티셔츠나 셔츠, 카디건 등 따뜻하면서도 온도에 따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게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좋다. 잠뱅이 디자인실 박지현 팀장은 "아우터로는 패딩 재킷이나 모자가 달린 아웃도어 점퍼가 따뜻하면서도 멋스럽다"고 추천했다.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활동적인 옷을 고른다. 음식을 만들 때는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펑퍼짐한 배기 팬츠나 트레이닝복이 적당하다.

◆인사 갈 땐 단정한 정장 차림

어른들께 인사를 갈 때는 정장을 입어야 단정해 보인다. 원피스나 스커트의 경우 짧은 길이는 피하고 절을 하거나 앉을 때를 고려해 길이는 무릎을 살짝 덮는 정도가 적당하다. 바지 정장은 실용적이지만 통이 너무 크거나 길면 바닥에 끌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추운 날씨인 만큼 외투도 챙겨 입어야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섞여있거나 패치워크 등 디테일이 더해진 코트는 도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볼드한 목걸이나 화사한 색상의 스카프를 하면 한결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떡국은 먹겠지만 나이는 안먹을래

또 한 살을 먹는 새해다. 많은 여성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피부'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스트라이벡틴의 한영주 MD는 "어려보이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안티에이징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부는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탄력, 기미와 같은 잡티, 주름의 깊이 등에 따라 동안과 노안이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명절 주름 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멀티 기능성 크림서 눈가·팔자 전용까지 새해 여심 유혹하는 안티에이징 제품들

최근 들어 탄력·주름·모공·잡티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멀티 제품이 인기다. 이 제품들은 피부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공급, 피부 본연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스트라이벡틴 AR 데이 & 나이트 크림 세트'는 보습과 주름 완화 기능을 동시에 갖춘 로션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동인비의 '동인비진 크림'은 고농축 홍삼 활성 성분이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멀티 크림이다.

주름이 생기기 쉬운 눈가나 입 주위는 전용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CNP 차앤박화장품의 기능성 아이크림 'CNP 링클 리페어'는 멀티 캡슐 아데노신이 눈가의 잔주름을 개선, 눈가를 탄탄하게 잡아준다. 소망화장품 오늘의 '베이비 페이스 도톰 팔자 패치'는 도톰하고 탄력 있는 팔자 라인으로 동안 얼굴로 가꿔주며, 하이드로 겔 제형의 패치 형태라 사용이 간편하다. /박지원기자

보송한 피부·갈색 눈썹… 은은한 고전미인

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요령

설에는 한복을 입어야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나지만, 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때문에 입기가 망설여진다. 맥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변명숙씨는 "한복은 평소 입는 옷보다 화려하고 밝은색이 많아 진한 화장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복의 다채로운 색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복을 입을 때는 업 스타일이나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 스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어 라인에 신경을 써서 화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전적인 한복에는 과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보다는 보송하고 차분한 느낌의 피부톤이 적당하다. 손보다는 화장용 붓을 이용해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한복에 잘 어울리는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머리를 업 스타일로 연출했다면 이마의 헤어 라인을 따라 어두운 아이 섀도로 빈 곳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섀딩 제품으로 얼굴 윤곽을 가볍게 쓸어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부드러운 살구색 블러셔로 광대를 두드려 생기를 더하고, T존이나 눈 아래에는 하이라이터를 발라 탱탱하게 리프팅된 효과를 주면 좋다.

눈 화장 역시 은은한 펄감의 차분한 섀도로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브라운·베이지 계열의 섀도를 사용하고, 눈두덩 중앙에 가볍게 하이라이팅을 줘 눈매를 그윽하게 만들어 차분한 인상을 주도록 한다. 이때 눈썹은 회색·검정색 대신 갈색을 사용해야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한복을 입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입술 화장이다. 강렬한 색상이나 누드톤보다는 블러셔 색상과 어울리는 살구, 연한 오렌지 핑크 계열의 립스틱으로 튀지 않게 연출해야 단아하면서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박지원기자

유아 카시트 앉혀 갈 때는 목보호 쿠션 필요

귀성길 차안 온가족 건강 수칙

고향 가는 길 장시간 좁은 차량에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지루해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온 가족의 즐겁고 안전한 귀성길을 도와줄 아이템을 소개한다.

자동차 같은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피부는 상하기 마련이다. 특히 히터로 건조해진 공기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므로 보습·진정 관리를 해야 한다. 아토팜 관계자는 "피부 땅김을 느낄 땐 자동차 히터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하고 미스트나 보습제를 수시로 뿌려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의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로나 졸음으로 시야가 좁아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허리에 집중되는 무게가 분산되도록 직각으로 세워 운전을 하고, 1~2시간에 한 번씩 차에서 내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연합뉴스

또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사고를 대비해 유아용 카시트는 반드시 준비한다. 아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유아용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아이를 자리에 고정해 충격으로부터 머리·목·가슴 등을 보호해준다. 실제로 한국 생활안전협회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때 사망사고의 90%를 줄일 수 있다. 브라이택스의 유아용 카시트는 아이의 체중·탑승 자세·사고 유형 등을 분석해 제품을 설계하고, 네 방향 입체 충돌 테스트를 거쳐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기만 한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목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머리가 심하게 흔들릴 경우 '흔들린 아기 증후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코끼리 귀 모양의 목 보호 쿠션인 '엘리펀트이어스'는 머리와 목의 양옆을 받쳐줘 장시간 이동에도 흔들림 없이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준다. /박지원기자

꽃누나 '만성변비도 병'

성인 女 10% 고통…전문의 치료 받으면 '쾌변'

인기리에 방송을 끝낸 tvN '꽃보다 누나'에서 한 중년 여배우가 변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화제를 모았다. 변비 고통을 '임신한 기분'이라 표현하며 안절부절못하는 태도를 보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운 웃음을 산 것이다. 그녀는 결국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배변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인 여성 10명 중 1명 만성 변비

여성이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겪어보는 변비는 방치되기 쉽다. 변비가 계속되면 만성 변비로 이어지는데 만성 변비는 배변 횟수가 적거나 배변 활동이 힘든 경우를 말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 비율이 증가하며 여성의 발병 비율이 남성보다 약 1.4배 높다. 특히 20~40대에서는 여성 변비 환자가 남성 변비 환자의 5배나 되는 등 변비로 고통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증상의 변비는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변비는 치료가 필요하다. 또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하거나 대변이 딱딱하게 굳는 경우,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이면서 배변 시 잔변감을 느끼는 증상이 있다면 만성 변비를 의심해야 한다.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하는 변비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변비를 부끄럽게 여겨 병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여자 중 약 10%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그중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12% 정도에 불과했다.

◆방치하면 장폐색 유발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악화된 만성 변비는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치질 중 하나인 치핵이며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폐색 역시 만성 변비의 합병증 중 하나다. 장폐색이 심각할 경우에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가 나타나며 변이 장 안에 가득 차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의학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만성 변비와 대장암이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만성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이나 배변 훈련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세로토닌 4형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장 운동을 개선시키는 치료제가 출시돼 약물 복용만으로도 효과적인 변비 관리가 가능해졌다.

구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송기환 부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만성 변비를 질환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해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한다. 만성 변비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동별 1개 병원·2개 약국 당번

명절 비상진료체계 가동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료기관·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전국 554개 응급의료기관·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3572개 당직의료기관 낮 시간 외래 진료 ▲5084개 당번약국 운영 등 지역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진료 공백을 없앤다. 이를 통해 동별 이상에서 평균 1개의 병원과 2개의 약국이 평일처럼 운영된다.

◆전화·인터넷·스마트폰으로 가까운 곳 바로 찾자

문을 연 가까운 병원·약국은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는 가까운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의 위치는 물론 진료 시간·진료 과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119와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보건복지부(www.mw.go.kr)·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30일부터 당번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생활 응급처치법 미리 숙지하자

설 연휴 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평소와 생활 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 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쉬워 간단한 생활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심정지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각각 2회와 30회씩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떡이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며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리는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우선 실행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학철기자

우유 챙겨먹는 아이 골밀도 더 높다

우유, 이래서 완전식품

'완전식품 우유가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을까?' 과연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우유 섭취는 뼈를 튼튼하게 하지도, 골다공증을 예방하지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우유를 잘 먹는 아이 그룹과 그렇지 않은 아이 그룹의 골밀도 검사 결과 우유를 잘 먹는 아이들의 골밀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순천향대학교 국제진료센터 유병욱 교수는 "우유는 오래전부터 고관절질환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권유돼온 음식으로 우유 100g에는 105㎎의 칼슘이 함유돼 있으며, 현존하는 식품 중 칼슘 체내 흡수율이 우유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는 주로 서구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육류 소비를 줄인다면 골다공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우유의 성장호르몬(IGF1)은 암세포를 성장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유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식도와 위벽의 점막을 보호해 식도암·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특히 이명희 박사는 저서 '밀크파워'에서 미국 국립암학회지 94호에 실린 '유제품의 섭취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과 달리 갱년기 이전의 여성들의 경우 하루에 1회 이상의 저지방우유 또는 탈지우유를 먹은 사람이 한 달에 3회 이하로 저지방 유제품을 먹는 사람에 비해 유방암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네 번째 젖소의 사육 환경이 공장식으로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낙농가들은 방송된 영상은 우리나라 목장이 아니며, 실제와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낳게 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을축목장 이순표 대표는 "우리나라는 낙농 선진국으로 유질 관리에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덴마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HACCP 운영과 무항생제 인증제를 통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볼륨 높이는 부모님…난청 체크할 기회

/연합뉴스

명절은 오랜만에 뵈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노인성 난청으로 관련 의료기관에 보청기 상담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다. 방치하면 더욱 심해지는 노인성 난청은 제때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성 난청의 대표적인 증상은 TV 볼륨을 크게 한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묻는 행동이다. 또 '발'과 '달'처럼 비슷한 말을 구분 못 하거나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노인성 난청으로 애먹고 있다면 보청기 구입 전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청력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청력 정도·유형·고막이나 중이 내 이소골의 상태·내이(달팽이관) 및 청신경의 상태 등을 분석해 난청의 근본적인 원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성 난청으로 확인이 됐다면 보청기 사용을 권장한다. 보청기를 착용해 떨어진 청력을 되돌릴 순 없지만 청력의 손실을 막아 남은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사용 편한 모바일 상품권 인기

G마켓 최근 판매량 전년 대비 62% 증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설을 맞아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G마켓이 설을 앞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62%나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권은 구매 후 바로 사용하거나 선물할 수 있어 명절 특수와 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모바일 상품권 중 학생들에게 유용한 문화상품권 판매는 작년 설보다 130% 급증했다. G마켓에서 판매 중인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전국 5대 편의점을 비롯해 영화관·서점 등 활용처가 다양해 스마트폰 시대 새로운 형태의 세뱃돈 및 용돈으로 인기가 높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올해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도 앞두고 있어 모바일 상품권이 더욱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옥션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및 e쿠폰 판매율이 작년 설 대비 약 15배 신장했다. 작년에는 모바일 상품권 및 e쿠폰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모바일 쇼핑객이 늘면서 e쿠폰 모바일 전용 코너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 코너에서는 커피·베이커리·패스트푸드·영화·뷔페·편의점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

피부미남은 '3단계 미남'

세안-면도-보습 단계별 피부관리 팁 따라하기

남성도 말끔한 피부가 경쟁력인 시대다. 최근 대세남으로 떠오른 배우 김수현·장혁(사진)·이종석 역시 촉촉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가졌다. 면도기 브랜드 쉬크가 빛나는 '피부 미남'이 될 수 있는 3단계 팁을 공개했다.

◆1단계: 기본은 꼼꼼한 세안

건강한 피부는 꼼꼼한 세안에서 시작된다. 하루 종일 먼지와 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은 전용 세안제로 딥 클렌징해야 한다.

먼저 클렌저를 적당량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고 두 볼과 이마·턱의 순서대로 원형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한다. 힘을 줘 문지르면 피부 보호막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피부결을 따라 문지르는 게 좋다. 이때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폼 클렌저를 사용하면 모공 속 노폐물은 물론 묵은 각질까지 제거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단계: 수염·구레나룻까지 정리

면도는 깔끔한 인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부의 수분을 빼앗는 동시에 자극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

면도를 할 때는 셰이빙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풍부한 거품이 면도날과 피부 사이의 마찰을 줄여줄 뿐 아니라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진정시킨다. 쉬크 하이드로 그루머처럼 면도기 자체에 모이스처라이징 젤 박스가 장착된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턱 밑 수염을 정리했다면 코 밑이나 구레나룻과 같이 구석진 부분도 꼼꼼하게 면도한다. 만약 수염을 기르고 있는 중이라면 전동 트리머와 빗 등을 이용해 수염을 길이별로 조절해 다듬어야 깔끔해 보인다.

◆3단계: 보습 관리로 촉촉한 피부

면도로 민감해진 피부에는 '수분 충전'이 절실하다. 우선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면도하는 동안 늘어난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 속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세안 후에는 얼굴은 물론 귀 뒤나 턱 아래, 목덜미까지 전체적으로 스킨·로션을 꼼꼼히 바른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수분크림에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킬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김연아 '소치 퀸' 되면 곰돌이 증정

그랜드 힐튼 호텔 이벤트 체크인 고객 대상 선착순

그랜드 힐튼 서울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2연패를 응원한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국기가 새겨진 '힐튼 소치 올림픽 기념 곰돌이 인형'을 선착순 14명에게 제공한다.

'힐튼 곰돌이 인형'은 소치 올림픽을 기념해 '소치 올림픽 기념 한정판'으로 제작됐으며 체크인 시 바로 제공될 예정이다.

호텔 마케팅 담당자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특급호텔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객과 함께 응원의 열기를 느끼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의 및 예약: 02)2287-8367

휘닉스에서 휘파람 부는 명절 보내세요

설연휴 평창·제주 혜택 푸짐

올해 첫 연휴인 설날을 맞아 휘닉스파크가 고객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휘닉스파크는 설 당일 전통 관복 및 도포를 차려입은 진행자가 진행에 나서 자녀들의 전통예절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동 차례를 마련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차례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도 진행된다.

또 최대 38% 할인되는 '블루캐니언 스파 입장권 사전 예매 이벤트'도 이어지며 짧은 휴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스키 패키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스노우빌리지 패키지도 빼놓을 수 없다.

휘닉스파크는 제주에서도 고객을 맞이한다. 제주 천혜의 절경, 섭지코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휘닉스아일랜드는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아쿠아스쿠버 패키지, 스테이롱 패키지 등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아쿠아스쿠버 패키지는 리조트 숙박과 조식, 실내 스쿠버풀에서의 기본 교육과 아쿠아플라넷 메인 수조 스쿠버 1회가 포함된 상품이다.

이와 함께 평창 휘닉스파크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를 무료로 이용하고 전국 12개 한화 체인의 콘도와 블루원 체인의 콘도를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스탠다드 기준으로 5인, 로얄스위트의 경우는 7인까지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무료 회원권은 워터파크 블루캐니언 365일 지정 2인 무료, 휘닉스파크 골프클럽 할인, 4인 스키 시즌권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www.phoenixresort.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554-0600 /황재용기자

롯데월드 '초대박 터뜨리는' 설날 큰잔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014 설날 큰잔치'를 연다.

가든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설 특집 메인 공연 '까치까치 설날'은 100명이 넘는 연기자와 관객이 함께 초대형 박을 터뜨리며 새해 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다.

31일부터는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설 연휴 분위기를 한층 더 흥겹게 만들어줄 '설 특집 공연'이 펼쳐진다. 남사당패가 길놀이에서 12발 상모 돌리기와 버나 돌리기를 벌이고, 명인 권원태씨가 민속 줄타기 등을 선보인다.

29일부터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동반 3인을 포함해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한다.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외국인을 위한 특별할인도 함께 진행한다. 문의: 02)411-2000

인사동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15% 할인 행사

전 세계 1000번째 이비스 호텔 오픈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독일 베를린·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 지역의 문화를 반영해 동시에 열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 25일,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의 5번째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인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이 종로구 익선동에서 오프닝 파티를 개최했다.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은 지하 2층~지상 10층·363실 규모로 탁 트인 전망이 자랑인 루프 가든을 비롯해 80석 규모의 식당과 회의실·사우나 등이 구비돼 있다.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을 포함, 국내 5개의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는 실제 투숙일보다 15일 앞서 예약 후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밴스 세이버' 예약 상품 행사를 진행한다.

예약은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문의: www.Accorhotels.com , www.ambatel.com

/김학철기자 kimc0604@

설 연휴를 맞아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다양한 포맷의 특집을 내놓는다. SBS '이영애의 만찬', tvN '노래로 응답하라 1994', MBC '스타닮은꼴 최강전'(위부터 순서대로)

팔도음식 한눈에 스타 닮은꼴 열전 리모컨 바빠지겠네

'엄마를 부탁해' 출산 앞둔 부부 얘기 '주먹쥐고 소림사' 무술 도전 그려내

'바람의 말' 말이 바뀐 문명사 다뤄 '응답하라 1994' 30일부터 전편 방송

지상파·케이블 눈길가는 프로그램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에 TV 속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지상파 3사는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SBS는 도전하는 예능에 초점을 맞췄다. MBC는 기존 프로그램 강화, KBS는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KBS

KBS2가 설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 '엄마를 부탁해'(30일 오후 8시30분)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마를 부탁해'는 총 6쌍의 임신 부부가 출연해 출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히 하반신 마비라는 남편의 장애를 딛고 강원래·김송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아이에 대한 열망과 사랑으로 2세를 가지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첫 방송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남북 청소년 우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별친구'는 다음달 1일 두 번째 회를 방송한다. 탈북 청소년 6명과 아역스타 4명, 특별선생님 윤손하·고주원·문희준 등이 출연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퀴즈쇼도 선보인다. 31일 첫 방송되는 '밥상의 신'은 MC 신동엽과 패널들이 퀴즈 대결을 통해 팔도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소개한다.

MBC

MBC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대표 설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 스타 육상 양궁 선수권 대회'(30일 오후 5시40분·이하 '아육대')가 명맥을 이어간다. '아육대'에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컬링 종목이 추가됐다. '스타 닮은꼴 최강전'(30일 오후 8시40분)은 스타와 싱크로율이 흡사한 일반인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또 청마해를 맞아 말이 바꾼 문명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바람의 말'(2월 1일 오전 7시30분)을 방송한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마왕 한혈마'(1부)와 인간에게 오천복을 주는 영물로 인식돼온 말의 기적 같은 이야기(2부 오천복마)를 전한다. 배우 송일국이 출연하고 말띠 해에 태어난 배우 하지원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SBS

SBS는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주먹쥐고 소림사!'(30일 오후 5시20분)를 방송한다. 김병만·장우혁·육중완(장미여관)·동준(제아)·니엘(틴탑)이 중국 무술 최고봉 소림사에 입문해 취권·당랑권·소림5권 등 전통 무술에 도전한다. 신개념 모창 배틀쇼 '스타 VS 국민도전자, 스타페이스오프'(31일 오후 5시20분)에서는 스타팀과 스타를 뛰어넘으려는 국민 도전자 총 74명이 맞붙어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9세 '리틀 이효리', 싸이 도플갱어, 아이유 모창 능력자가 등장한다.

반가운 얼굴 이영애가 설 특집 다큐멘터리 '이영애의 만찬'(2월 2·9일 오후 11시15분)으로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비친다.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음식 문화와 정체성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케이블

tvN은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응답하라 1994' 특집으로 꾸민다.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응사' 전편을 다시 방송하고 31일 오후 10시에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음악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노래로 응답하라 1994'를 마련했다. OST 특집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는 정우·김성균·유연석·바로·민도희가 출연해 '너에게' '그대와 함께' '운명' '행복한 나를' 등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OST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채널 CGV에서는 성룡·권상우 주연의 '차이니즈 조디악'(30일 오후 10시), 덴절 워싱턴과 라이언 레이놀즈의 '세이프 하우스'(2월 1일 오후 10시)가 방송된다. OCN은 30일 '내가 살인범이다'(오후 10시)와 2월 1일 '존 카터:바숨 전쟁의 서막'(오후 10시)을 방송하고 2일 오전 6시부터 '도둑들' '박수건달' '차이니즈 조디악' '존 카터 : 바숨 전쟁의 서막' '가문의 영광5' '내가 살인범이다'를 연속 방영한다.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마큐브'는 김수현 특집을 마련했다. 31일 오전 8시부터 '해를 품은 달' 20부작 연속 방송에 이어, 2월 1일 오후 8시20분부터는 '별에서 온 그대'가 14회 연속 방송된다.

애니메이션 채널 챔프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 특집으로 '이웃집 야마다군'(29일 오후 10시), '코쿠리코 언덕에서'(30일 오후 10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월 1일 오후 7시), '모노노케 히메'(2월 1일 오후 10시), '이웃집 토토로'(2일 오후 8시), '천공의 성 라퓨타'(2일 오후 10시)를 만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난 ‘방콕’ 즐기는 뚜벅이족이죠”

‘응답하라 1994’로 대세남 떠오른 정우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
연기인생 안풀려 한때 사회와 단절
마음 비우고 내실 다졌더니 술술
확~ 뜨고 나서 달라진 건 없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우(33)가 설을 맞아 메트로신문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랜 무명의 설움을 견뎌내고 노력의 결실을 본 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런 믿음과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확신을 드러냈다.

 # 생활고 겪으면서 연기 내실 다져

여러 명의 스태프가 붙어도 스케줄 정리가 힘들 정도로 정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살이 쏙 빠진 것 말고 정작 변한 건 없다. 모든 게 운이었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하게 90도 ‘폴더 인사’를 건넨다.

‘응답하라…’의 쓰레기 역할로 인생 역전의 로또를 맞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그를 아는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말한다. 익히 그의 재능을 알고 있던 이들은 ‘응답하라…’에 캐스팅된 순간 성공을 확신하기도 했다.

“제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할 만큼 보편적인 마스크는아니잖아요. 캐스팅 자체가 의외였는데 대본을 보니까 의아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진짜 쓰레기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죠.”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에 발을 들인 그는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지만 연기 인생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2009년 주연을 맡은 영화 ‘바람’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개봉 당시에는 그의 삶을 크게 바꿔놓지 못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며 살아오다 결국 늦은 나이에 군 복무를 택했다.

“서른 살이 되니 마음을 많이 비우게 됐어요.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사회와 차단하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우선이 아니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만을 붙잡고 살았죠.”

내가 원하는 작품과 캐릭터를 찾고 싶은 이상과 생활고는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컸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2012년 8월 제대 후 KBS 드라마스페셜,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영화 ‘붉은 가족’, KBS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 등 쉼 없이 작품을 했고 마침내 ‘응답하라…’를 만났다.

“아는 동생이 해준 ‘동 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말을 되뇌이며 견뎌왔어요. 제대로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거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외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을 다져왔죠.”

 # 광고 대박…첫 지출은 어머니 임플란트

‘응답하라…’ 출연 이후로 출연한 CF만 8~9개다. 계약을 앞둔 CF를 포함하면 15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통신·주류·외식·화장품 등 광고계 대세들이 거친다는 업종은 모두 섭렵했다.

“신기하고 얼떨떨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차도 없이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집을 옮길 생각도 없고요. 가장 먼저 결정한 유일한 지출은 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것이었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아서 여전히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똑같은 생활을 할 겁니다.”

‘응답하라…’ 이후 모든 영화와 드라마 대본은 정우를 거쳐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품 출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정작 대본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출연을 거절했다는 말부터 나도는 등 각종 뜬소문에 유명세도 톡톡히 치렀다.

“이번 작품에서 기회를 준 관계자분들에게 아직 감사 인사를 할 시간도 모자라죠. 황당한 루머에 억울할 때도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거창한 포부보다는 좋은 작품을 골라 더 치열하게 연기해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1% 가 묻고 99% 가 상상한다!

tvN 커넥티브 강연쇼

창조클럽 199

매주 | 수 | 저녁 6시 50분 tvN 방송 / 1월 29일 첫방송

1화 | MC 서경석 강연자 김희재 대표 한국 영화 사상 최초 천 만 관객 돌파 영화 '실미도' 작가 | 민세희 대표 시각데이터 디자이너, 국내 최초 테드 펠로우 (TED fellow) 선정

설 연휴 극장가가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화제작들로 풍성하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성룡 주연의 '폴리스 스토리 2014', 코엔 형제의 첫 음악 영화 '인사이드 르윈', 하지원 주연의 '조선미녀삼총사'(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뮤지컬 애니 만날까 성룡 액션 즐길까

설 연휴 볼만한 영화 총정리

모험담 그린 '겨울왕국' '폴리스 스토리 2014' 등 풍성
칸 수상작 줄줄이… '변호인', '괴물' 기록 깰지도 관심

다가오는 설 연휴 대목을 맞아 극장가가 분주하다. 4대 투자·배급사가 각각 신작을 내놓고 가족 관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명절 단골손님인 성룡도 돌아오고, 겨울방학 특수를 맞아 대작 애니메이션도 풍성하다.

◆ 제2의 '7번방의 선물'은?

지난해 설 연휴에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흥행 신화를 꿈꾸는 4대 배급사의 신작 경쟁이 치열하다.

CJ E&M의 '수상한 그녀',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피끓는 청춘', 그리고 '7번방의 선물'을 만든 NEW의 '남자가 사랑할 때'가 22일 개봉해 일찌감치 흥행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쇼박스의 '조선미녀삼총사'가 29일부터 가세한다.

일단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기세를 잡았다. 시간 여행을 통해 20대로 돌아가 가수의 꿈을 키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린 휴먼코미디물이다. 만 스무 살의 심은경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할머니 연기를 차지게 소화해냈다.

이종석·박보영 주연의 '피끓는 청춘'은 1980년대 충청도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사랑을 그린 하이틴로맨스물이다. 소년 카사노바로 변신한 '대세남' 이종석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늑대소년'의 헤로인 박보영의 불량 소녀 변신이 볼거리다.

황정민·한혜진 주연의 '남자가 사랑할 때'는 삼류 양아치로 살아온 한 남자가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는 내용의 멜로물이다. 오랜만에 멜로영화로 돌아온 황정민의 '황정민표 멜로 연기'가 눈시울을 적신다.

하지원 주연의 '조선미녀삼총사'는 할리우드 영화 '미녀삼총사'의 조선판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현상금 사냥꾼인 미녀 삼총사의 활약을 그렸다. 자타공인 한국 대표 액션 여배우 하지원의 색다른 요요 액션과 코믹 연기가 볼거리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의 스크린 주연 데뷔작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이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 영화인 '괴물'(1301만 명)의 기록을 꺾을지도 관심사다.

◆ 디즈니 vs 토종 애니메이션

올 설 극장가는 여느 때보다 대작 애니메이션의 흥행 돌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16일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변호인'의 기세를 꺾고 2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으며, 개봉 11일 만에 누적 관객이 300만 명을 넘었다. 역대 흥행 1위 애니메이션인 '쿵푸팬더 2'(506만 명)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 유일한 힘을 가진 자매 엘사와 안나의 모험담을 환상적인 동화와 화려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조합으로 그려냈다.

'겨울왕국'의 흥행 돌풍에 도전장을 내민 작품은 토종 애니메이션인 '넛잡: 땅콩도둑들'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원이 투입된 이 작품은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뒀다.

사고뭉치 다람쥐 설리와 친구들의 기상천외한 땅콩털이 대작전을 실감 나는 그래픽과 귀여운 캐릭터로 담아냈다. 국제가수 싸이가 3D 캐릭터로도 잠깐 등장한다.

◆ 외화는 오락 영화 vs 다양성 영화

설 연휴 외화 시장은 가볍게 웃으며 볼 수 있는 오락용 상업영화와 지난해 칸에서 수상한 다양성 영화로 양분된다.

눈에 띄는 작품은 29일 개봉할 성룡 주연의 액션물 '폴리스 스토리 2014'다. '취권' '용형호제' '러시 아워' 등에서 리얼 액션 연기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성룡이 더욱 진화한 맨몸 액션을 선보인다.

22일 개봉한 영화 '위험한 패밀리'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제작, 뤽 베송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 니로·미셸 파이퍼·토미 리 존스가 출연해 화제를 모으는 범죄 코미디물이다.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16일 개봉한 후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 박스오피스 1위로 흥행 질주 중이다. 평범한 두 소녀의 진한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코엔 형제의 '인사이드 르윈'이 29일 개봉한다. 코엔 형제의 첫 음악영화로 빈털터리 무일푼 뮤지션의 7일간의 음악 여정을 그린다. 오스카 아이삭·캐리 멀리건·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할리우드의 '핫'한 스타들이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SEENSEE COMPANY in association with
Colin Ingram, Hello Entertainment and Paramount Pictures presents

영국 웨스트엔드 최신 대작, 한국 초연!

AUDIENCE REVIEW

제목은 고스트지만, 무대와 모든 배우가 살아있는 공연!
- hush19**

구성짜임도 너무나 정교해서 보는데 감탄 밖에 나오질 않았다.
객석 어디서 보든 최고일 듯!!
- eoikl**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영화와 같은 감동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박수가 절로 나더군요.
- sunnyred06**

화려한 무대, 매직쇼, 감동적인 스토리, 최고의 연기력
뭐하나 나무랄것 없이 감동적입니다.
- hurdle**

돈으로 살 수 없는 표 값 이상의 것을 얻어갔던 시간이었고
우리나라 뮤지컬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최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 envyme**

무대 연출, 대박!
커튼콜에서 연출가에게 기립박수 보내고픈 심정!
- youngm2**

GHOST

뮤지컬 고스트

NOW SHOWING

디큐브아트센터

Special Discount

신시공연 재관람할인 최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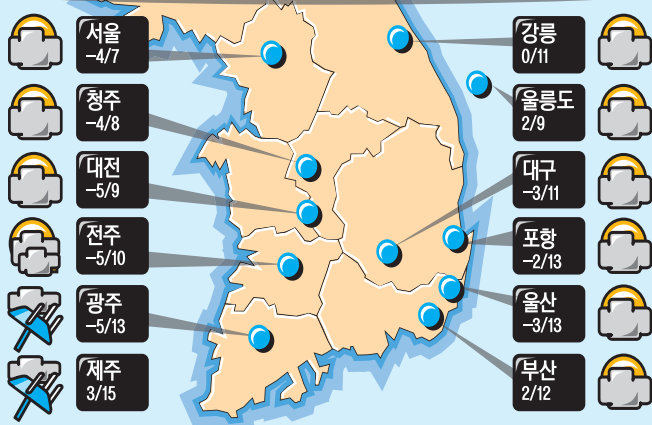
*2012~13년 신시공연(맘마미아 내한공연, 아이다, 시카고, 고스트 등)
관람자 할인 30%~10%(회차별 차등 적용)

백회 기념 할인 20%

*2014년 2월 4일 ~ 2월 9일 공연예매자에 한해 적용(특정회차 제외)

주 원 김준현 김우형 아이비 박지연 최정원 정영주

주최 SBS 신시컴퍼니 제작투자 인터파크INT

후원 MAKE UP FOR EVER 삼성생명 KB국민은행 Hanwha General Insurance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4				
			1	6	2	3	7	4
		5			7			
	1	9				6		
		6	3				5	7
		7		8				6
9		3			4			
		1			6	5		9

		5	7	1				4
	3				8		1	7
8			4		7			3
	7		6	9	3		4	
9			8		1			2
3	9		1				2	
1				7	9	6		

스도쿠 정답

6	3	4	5	7	9	8	2	1
1	7	2	8	4	3	9	6	5
5	9	8	1	6	2	3	7	4
3	8	5	6	1	7	4	9	2
7	1	9	4	2	5	6	8	3
2	4	6	3	9	8	1	5	7
4	5	7	9	8	1	2	3	6
9	6	3	2	5	4	7	1	8
8	2	1	7	3	6	5	4	9

7	2	1	9	3	4	5	8	6
6	8	5	7	1	2	3	9	4
4	3	9	5	6	8	2	1	7
8	1	6	4	2	7	9	5	3
5	7	2	6	9	3	8	4	1
9	4	3	8	5	1	7	6	2
3	9	7	1	8	6	4	2	5
1	5	4	2	7	9	6	3	8
2	6	8	3	4	5	1	7	9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설날의 아이스와인

음력을 중히 여기는 우리는 설날을 실질적인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 푸짐한 음식을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설 음식에 맞는 와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해법이 나와있다. 물론 궁합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마케팅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억지 춘향의 성격도 강하다.

그래서 굳이 설날 음식과 와인을 매칭시키기보다는 식사 이외의 장소에서 여럿이 어울리는 분위기에 걸맞은 와인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스와인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

독일의 리슬링이나 캐나다의 비달 품종이 주로 쓰이는 아이스와인은 사람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다.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다가 섭씨 영하 7도 아래로 내려가면 꼭두새벽부터 손으로 꽁꽁 언 포도송이를 수확한다. 날이 새기 전 포도에서 얼음 부분을 압착기로 분리해내면 당도가 확 올라간 진액만 남는다. 이를 발효한 후 숙성, 병입하면 아이스와인으로 탄생한다.

약 70%를 차지하는 포도알의 수분은 분리된 얼음만큼 줄어드는 게 당연지사. 때문에 아이스와인 한 병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도송이도 몇 배 더 들어간다.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약 반 병 정도의 아이스와인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반 병은 고사하고 한 잔 정도의 양만 나올 때도 있다. 그만큼 귀한 와인이다.

달면서도 새콤한 산미가 그대로 살아있고 과일 향도 풍부해 코와 혀로 전달되는 그 황홀함은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한다.

등산 마니아들은 상당수 설 연휴 기간 중 일출을 보러 새벽 산을 찾는다. 산에 올라 아이스와인을 마셔보자. 잔에서 올라오는 과일 향과 꽃 향이 진동한다. 커피만큼 따뜻하지는 않지만 꿀 맛이 가미된 달달함이 입안에 녹아든다. 추운 날씨 탓에 마시는 느낌도 훈훈하다. 적당한 알코올은 몸을 덥혀주고 와인 안의 당분은 체력을 보충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과일로 후식을 즐기며 마시는 아이스와인은 또 어떤가. 과일과 아이스와인의 기막힌 매칭이 화목한 웃음꽃에 일조한다. 연인끼리 단둘이 마시는 아이스와인도 장소 불문, 사랑을 키운다.

mcho@metroseoul.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편과 별거하기로 하고 독립 이것저것 배우면서 난관 극복

star42 여자 82년 12월 12일 양력 오전 5시30분

Q 신랑과 각자 살기로 하고 친정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이고 영양사 면허는 있지만 사무직으로 근무했어요. 메이크업을 배울지, 바리스타를 배울지 고민 중이에요.

A 겉은 음(陰)이지만 내성이 양왕(陽旺)해 불굴의 의지와 확신이 있으므로 3년 후부터는 발복합니다. 현재 운세가 분주다사해 발전하지 못하니 애가 타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배우면서 힘내십시오. 삶의 양식에 타산적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으나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도 많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분의 변화가 심해 무엇인가 이루려는 욕망이 강한 가운데 신병살(身病殺)이 발생되기도 하니 건강 유의하고 신경질이 겹치지 않도록 하세요. 편관겁재(偏官劫財:법을 비켜가서 돈을 취함)로 사업을 하면 재물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도 따르니 주위에 도움을 청한 다음에 도전하십시오.

수의학과 편입 준비 괜찮을지 수의사 자격증 따도 직장생활

대기만성07 여자 75년 1월 8일 음력 오후 11시35분

Q 첫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그후로는 가는 곳마다 상사와 갈등이 생겨 그만뒀습니다. 동물을 좋아해 현재 수의학과 편입 준비 중입니다. 좋은 선택일까요?

A 사주 구조는 을목(乙木)인 화초가 인월(1월)에 태어났으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절이 되지 않아 생활상에 편안함이 부족합니다. 재물운이 사주상 녹왕지(綠旺地)에 있으니 수의사 자격을 획득하고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선량하지만 간극지(干剋支: 천간과 지지가 서로 극을 하고 있음)하고 백호살로 순간순간 과격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갈대밭의 갈대'와 같은 상으로 일관성이 없어 생각처럼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막의 선인장'과 같아 삶의 고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기이한 발복이 있으니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자이니 신경성 위장병에 특히 유의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9일 (음 12월 2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예상치 못한 희소식 날아든다. **60년생** 달콤한 말은 유혹이니 조심. **72년생** 마음에 두었던 일 시작하면 결과 좋다. **84년생** 연인의 애교에 살맛 나는 하루.

49년생 돈으로 인한 자존심은 접어라. **61년생** 투자한 곳에서 이득 생긴다. **73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으니 일거양득. **85년생** 술자리 길면 후회할 일 생긴다.

50년생 기다리던 문서 들어온다. **62년생** 도와주는 사람 많아 신바람 난다. **74년생** 친구라고 무조건 믿으면 낭패본다. **86년생** 기회 왔을 때 존재감 보여줘라.

51년생 고민은 한잔으로 털어버려라. **63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5년생** 엉뚱한 일로 뛰어다니지 마라. **87년생**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52년생 욕심부리면 자충수 둔다. **64년생**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진퇴양난. **76년생** 상황이 바뀌더라도 본분 지키면 손해 없다. **88년생** 손으로는 하늘 못 가린다.

53년생 외출 땐 빙판길 조심하라. **65년생** 본분만 지켜도 권위 높아진다. **77년생** 동료가 부탁한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라. **89년생** 욕심을 부리면 적만 늘어난다.

42년생 친한 벗에게 어려움 생긴다. **54년생** 수입이 늘 때 돈 관리 잘하라. **66년생** 땀을 흘린 만큼 열매가 풍성하다. **78년생** 주변의 도움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43년생 찾아갈 곳이 많아 바쁜 하루. **55년생** 배우자 덕에 명예 상승한다. **67년생** 다툼 일 생기면 양보의 미덕 보여라. **79년생** 앞으론 밑지나 뒤론 남는 격이다.

44년생 하나 베풀면 열을 얻는다. **56년생** 운전으로 인한 시비 조심. **68년생** 불청객 때문에 계획한 일은 차질 생긴다. **80년생** 같은 실수 하지 않도록 신경 써라.

45년생 술이나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할 것. **57년생** 이것저것 손대지만 빈손이다. **69년생** 내 것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마라. **81년생**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46년생 귀가 얇으면 몸이 피곤하다. **58년생** 주색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할 것. **70년생** 길한 운에 재물은 늘어나고 명예는 오른다. **82년생** 공돈 생겨 한턱낸다.

47년생 이미지 개선에 신경 써라. **59년생** 껄끄러운 사람과 악수하니 즐겁다. **71년생** 재운 열렸으니 금전적 실리 추구할 것. **83년생** 좋은 이성과 인연 맺는다.

이용대 인천AG 못 뛰나

국제배드민턴연맹, 도핑 절차 위반 자격정지 1년…협회 "약물복용 안해" 항소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선수 활동에 위기를 맞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게 각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가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두 선수는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이 같은 징계를 당했다. BWF는 지난해 3·9·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명령했지만 둘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와 이용대·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지난해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며 "9월에는 서면으로 소재지 보고서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무이사는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약물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며 "이번 징계는 약물검사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WADA에 항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여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소치 성화 리허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가 올림픽 파크 내의 볼쇼이 아이스돔(오른쪽)과 샤이바 아레나(왼쪽) 사이에 있는 조형물에 밝혀졌다. 소치 올림픽은 다음달 7일(현지시간) 개막한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소연 "매 경기 공격포인트 목표"

첼시 입단 위해 영국 출국

'지메시' 지소연(23·사진)이 한국 여자축구선수 최초로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포부를 밝혔다.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 입단이 확정된 지소연은 28일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매 경기 출전하면서 공격포인트도 한 개씩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드디어 런던으로 가게 돼 부담도 많이 되고 너무 기뻐서 지금 말이 안 나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내가 잘해야 한국 여자 축구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다른 선수들도 유럽으로 올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선수들이 워낙 신체조건이 좋아서 힘으로 붙으면 질 것 같다. 빠른 판단으로 그들을 제칠 수 있는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하겠다"면서 "새로운 팀에 빨리 녹아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팀에서도 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프로농구 전적 (28일)

팀	1Q	2Q	3Q	4Q	합계
동부	15	14	12	19	**60**
인삼공사	18	9	17	20	**64**
우리은행	17	15	17	25	**74**
신한은행	11	10	20	22	**63**

프로배구 전적 (28일)

팀	점수	점수	팀
LIG손해보험	3	1	러시앤캐시

멕시코전·농구 선두경쟁…스포츠가 있어 연휴 더 즐겁다

설 연휴를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에서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줄줄이 열린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향해 홍명보호는 명절을 반납하고 훈련과 평가전에 여념이 없고,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인 프로농구와 배구는 빅매치들로 한겨울 추위를 녹인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럽파 축구 스타들은 심야 안방극장에 골 축포를 터뜨릴 예정이다.

◆홍명보호 내일 멕시코전

홍명보호가 30일 오전 11시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올해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2014년 코스타리카와의 첫 번째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축구대표팀은 하루 휴식 뒤 다시 연습을 향해 구슬땀을 흘렸다.

멕시코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치며 힘겹게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한국보다 32계단이나 높은 21위를 달리고 있는 전통의 강호다. A매치 28경기에서 15골을 기록한 오리베 페랄타가 공격을 이끌고, A매치만 116회나 치른 베테랑 라파엘 마르케스가 이끄는 수비진도 안정적이다.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카메룬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상대 전적은 5승2무4패로 멕시코가 우세하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최근 맞붙은 2006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친선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는 등 최근 3경기에서 2승1무를 기록했다.

◆설 축포 쏘아올릴 유럽파 누구

월드컵 대표팀의 핵심 멤버들은 평가전 대신 유럽 무대에서 골 사냥에 나선다. 유럽파 중 최상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기성용(선덜랜드)은 30일 오전 4시45분 스토크시티, 다음달 1일 오후 9시45분 뉴캐슬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나선다.

카디프시티의 김보경은 다음달 2일 자정 노리치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한다.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레버쿠젠)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30분 슈투트가르트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의 골 행진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류승우의 활약 여부도 기대를 모은다. 류승우는 26일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후반 38분 손흥민과 교체 투입되며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예상보다 빨리 데뷔한 류승우가 벌일 손흥민과의 포지션 경쟁도 흥미를 모은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 콜리세움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김신욱이 드리블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철과 박주호(이상 마인츠), 지동원과 홍정호(이상 아우크스부르크)도 같은 시간에 각각 프라이부르크, 베르더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농구 선두 경쟁 분수령

프로농구 선두 자리를 놓고 연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SK·울산 모비스·창원 LG의 정상 정복 작전은 연휴에도 계속된다. SK와 모비스는 30일 오후 2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모비스와 LG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6위를 굳히기 위한 고양 오리온스와 이를 추격하는 전주 KCC·서울 삼성 등의 경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프로배구 본격 PO 티켓 경쟁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남자 프로배구에서 남은 한 장의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놓고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이 경쟁한다. 창단 시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3위 우리카드와 최근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4위 대한항공이 티켓 싸움을 벌인다.

3위 추격에 갈 길 바쁜 대한항공은 연휴 동안 강적들을 상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30일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삼성화재와 맞붙고 다음달 2일 오후 2시 천안 관순체육관에서 현대캐피탈과 대결한다.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양강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KGC인삼공사·한국도로공사가 3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30일 흥국생명-인삼공사전(계양체육관), 31일 현대건설-도로공사전(수원실내체육관), 다음달 1일 GS칼텍스-인삼공사전(이충문화체육관·이상 오후 4시)이 관심을 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설 연휴 정상 운영 | 기간 1/30~2/1 시간 09:00~18:00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상담은 국번없이 110

정부 3.0 국민이 행복한 설날이 시작됩니다.

EVENT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1/23 ~2/10) ※110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에서 참여가능!

고속도로 상황이 궁금할 때?

진료가능한 병원이 궁금할 때?

대중교통 연장운행 궁금할 때?

가로등 고장신고 해야 할 때?

국도 상황이 궁금할 때?

문 여는 약국이 궁금할 때?

복지부정신고 해야 할 때?

설날 문화행사 정보가 궁금할 때?

불법주·정차 구간이 궁금할 때?

부패·공익침해신고 해야 할 때?

날씨가 궁금할 때?